

스트레스 해소...만족도 향상 ‘기업용 템플스테이’ 개발됐다

문화사업단, 휴식형 프로그램도 선보여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에 선보인 매뉴얼은 심신치유가 필요한 직장인과 휴식을 선호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정신 및 감정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업연수용 및 자율형(휴식형)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정신 및 감정노동자를 위한 기업연수용 템플스테이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기파기 법석 기통산장(氣通山場)’이다. 초의차명상원 지장스님이 연구한 것으로 정신 및 감정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및 여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해 소통과 업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기통산장’은 크게 휴식, 치유, 긍정의 마음 개발, 삶의 의미 찾기 등 4가지 주제를 토대로 진행된다. 자연환경과 명상수행, 전통 문화를 활용해 8가지 수행프로그램으로 단계화했다. 숲속의 청량한 기운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고,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명상 뒤, 과거와 현재 미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아명상을 통한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는 체험을 통해 생활 속의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기통산장 프로그램은 명상수행 기법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더해진 복합힐링 처방”이

라며 “정신 및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발한 자율형 템플스테이 휴식이라는 참가자의 요구와 ‘행복의 씨앗을 찾아 가꾸자’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철학을 반영시킨 것이다. 자율형은 아생여당의 기본 테마인 위로, 건강, 비움, 꿈을 기반으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참가자 이완 프로그램, 지도법사 스님이 진행하는 총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표사례로 반야사, 도갑사, 수덕사, 법륜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수록돼 있어 일반 사찰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면서 가족대책위의 뜻이 하루빨리 성취되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가족대책위 ‘격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의 예를 받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4대 종단 서명에 동참했다.

김병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여야 의견이 엇갈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에서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께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힘을 아끼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정호원 국무총리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세월호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면서 “세월호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종단에서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 가족들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화답했

다. 이어 4대 종교지도자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며 “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 사회부장 정문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김형기 대책위 부위원장, 이수하 대책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 노력”

박영선 대표 총무원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9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 <사진>의 예방을 받고 “세월호 특별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현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으로 바빠서 인사가 늦었다”면서 “조계종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야가 원용 화합하는 묘를 살려 민생을 살피는데 정치 역량을 모아 달라”면서 “특히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종교계에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오는 24일 종계사에서 100재를 봉행한다”면서 “그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조계종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결의문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는 국민에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014 예비종무원 과정 8월8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종무원력 양성을 위해 오는 8월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4년 종무행정학교 ‘예비종무원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본소양과정과 전문역량과정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불교! 쉽고 명쾌한 이해

△종무원의 가치와 행복 △사찰문화의 이해 △종교 환경과 조계종 등이다. 또 전문과정은 △문서·보고서 작성 실무 △종현과 입법실무 △사찰문화재 관리와 활용 △사찰종무개론 △셀프리더십과 팔로워십 △회의진행 및 토론법, 발표력 향상 기법 △불교 관련 국가법령의 이해 △템플스테이 운영과 실제 등이다.

종무행정학교에 동참하려면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8일까지 팩스(02-720-3302) 또는 이메일(kys@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40명이며 교육비는 10만원(교육이수 시 교육비 전액 환급), 참석대상자는 8월11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허정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

도선사·한마음선원 성금

서울 도선사가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도선사(주지 도서스님)는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선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지원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 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

도선사 주지



혜원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도서스님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사중에서 기금을 모금해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스님)도 10일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돕고 아프리카 학교 건립

을 위한 성금 4257만8260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보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2000만 원, 나머지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불사와 세월호 희생자 지원에 마음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 임태규 기자

도난문화재 담보 잡힌 사립 박물관장 ‘검거’

도난문화재 수백 점을 사들여 몰래 감춰둔 박물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도난문화재 수백 점을 갖고 있던 혐의로 사립박물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불교 미술품 등 도난문화재 400여 점을 사들여 자신의 박물관 수장과 등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이 지난 5월 경매에 출품한 문화재 가운데 도난문화재가 있다는 조계종 문화부의 신고를 받고 ‘영산회상도’ 2점, 목조관음보살좌상, 진종도 등 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미술품이 도난된 것으로 확

인하고 원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난문화재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가 이를 경매에 내놓은 과정에서 탈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난문화재를 압수해 A씨에게 흘려들여간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도굴꾼과 유통업자를 찾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경전 연구회 10주년 기념 무/료/강/좌

이 시대의 고견하신 원소 큰스님을 모시고
경전연구회 주최로 「명추회요冥樞會要」를 강의합니다.

「명추회요」는 「종경록宗鏡錄」명명연수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정리한 책입니다.
「명추회요」는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신통은 반야를 장애할 수 있다. 그림자는 진실이 아니다.” 즉, “마음을 바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불교 경전연구회에 모여서 함께 공부합시다.

- 강 주 _ 원소 큰스님
- 경 전 _ 명추회요(冥樞會要)
- 개 강 _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매월 4째 목요일)
- 장 소 _ 서울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 수 강 료 _ 무료
- 교 재 _ 법공양
- 모집대상 _ 공부하고 싶은 모든 스님
- 문 의 _ 회장 무각 010-8929-4457, 총무 선일 010-9364-0490
재무 법천 010-5350-9885

각 분야 별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토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중국,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영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인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 관련 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 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취명상학과 9월 4일]

※ 불교대학원 개강 [9월 2일, 9월 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 6일, 범패의식반 9월 3일]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일, 토신반 각 5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6월 15일부터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DONGSAN
불교교육
전범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주)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